

대형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재난 때는 이렇게 하자



백화점, 터미널, 호텔, 복합 오피스 빌딩, 지하철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 무력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쉽다. 재난을 당했을 때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테러 등으로 재난 사고를 처음 발견했을 때

- 상황 전파: 건물 내부의 사람들에게 긴급히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린다.
- 신고: 119나 112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지상으로의 대피

- 지상으로 대피가 우선이다.
- 비상 계단을 내려갈 때는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인지 확인하고 내려간다.(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

지상에 도착했을 때

- 건물 붕괴의 위험에 대비 견고한 외벽을 따라 대피한다.
-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바로 지상으로 대피한다.
- 건물 붕괴 후 폭풍 등을 감안 건물 높이 2배 이상의 거리 밖으로 벗어난다.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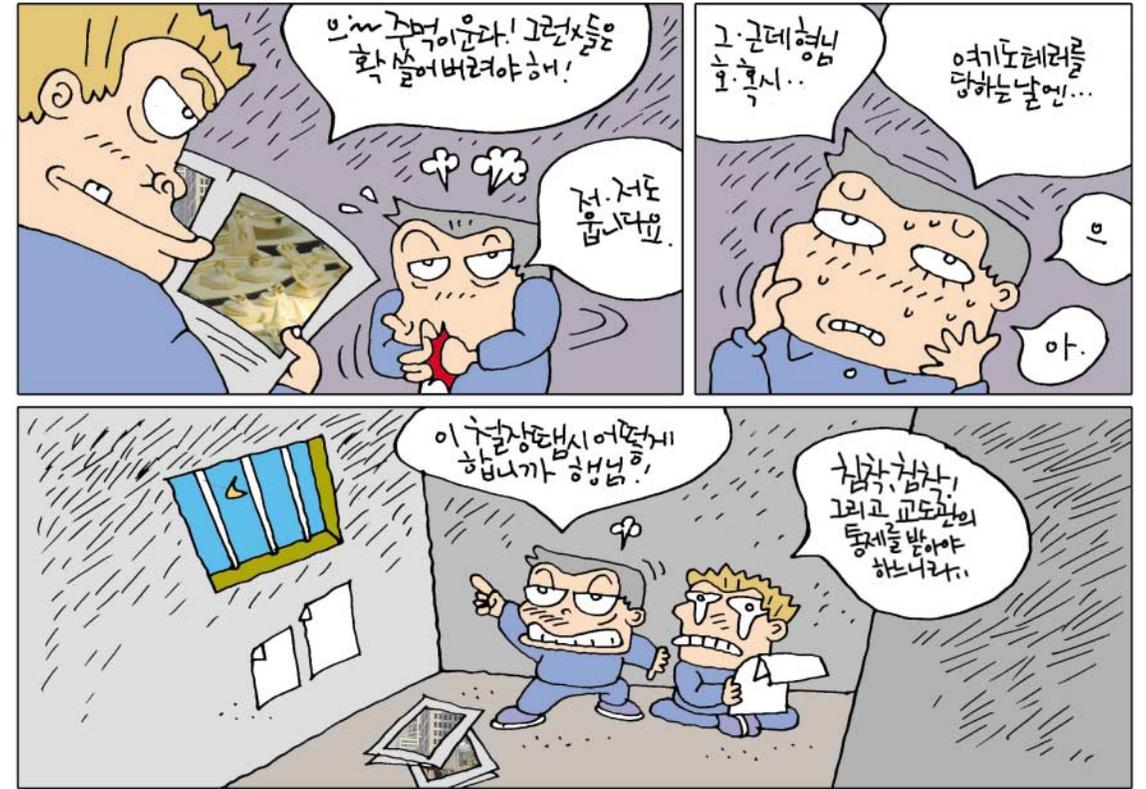
- 내려가는 계단이 막혔을 때는 옥상으로 탈출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옥상으로 가는 길도 막혔으면 창가 등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린다.

대피시 유의 사항

- 돈이나 귀중품에 연연해 하지 말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개인 행동은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있으면 보호하여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작동을 멈추게 되므로 비상 계단 등을 이용한다.
- 다급하다 하여 창문으로 무작정 뛰어내리지 않는다.
- 이동할 때는 벽돌이나 유리 등의 파편을 조심한다.
- 사무실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문을 확 열어서는 안 되며, 몸을 뒤로 숨기고 천천히 열어야 한다.
- 전기 화재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쓰지 않는다.
-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문을 열면 안 된다. 이럴 때에는 문틈을 막고 주변에 물을 뿌린 다음 창문을 열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복도를 빠져나갈 때는 유독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뛰지 말고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 가스 유출시 천장부터 차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어서 대피한다.(바닥에서 20cm 정도까지 공기가 남아 있음)
- 옷에 불이 붙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이불과 담요 등으로 감싸거나 바닥에 뒹굴면서 손으로 두들겨 끈다.
- 유언비어나 공포 분위기 조성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

전동차(지하철) 내의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 노약자·장애인석 측면 비상인터폰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한다.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끈다.
- 출입문이 닫혔을 때는 출입문 쪽 의자 옆 아래쪽에 있는 두껍을 열고 비상코크를 잡아당겨 공기를 뺀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연다.
- 정전시에는 유도등을 따라(어두운 경우 빛이 보이는 쪽으로) 출구로 나간다.